



날으는 홍범도장군

제10호
2016. 9. 22
가을

사단법인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길 17(신교동) 발행인:이중찬 편집인:홍성덕
TEL: 02)734-8851~2 FAX: 02)722-0251 http://www.hongbumdo.org



<기념사업회 임원 홍범도함 승조원 전문 사진>

홍범도함 초청 진해 방문행사, 성황리에 종료

(사)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이중찬)에서는 지난 9월 8일부터 1박 2일 동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한민국해군 홍범도함(함장 대령 강정호)의 초청으로,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16명이 진해 해군기지를 방문하여 성황리에 방문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서울에서 출발하여 KTX편으로 창원중앙역에 도착하자, 강정호 함장이 출영을 나와 첫 번째 일정으로 해군사관학교의 박물관과 생도숙소를 둘러보았다. 기념사업회 일행은 해설사의 도움을 받아 해사박물관에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강정호 함장 주최한 만찬은 홍범도함 부대 승조원 전원이 함께 뷔페음식을 즐기며 오누이로서의 뜨거운 정을 나누었다.

이중찬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홍범도함 명예함장으로 위촉되고, 전신 모양의 피규어를 선물 받았다. 이어진 견배사에서 이사장은 홍범도 함장과 승조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여러분 덕에 우리들은 발을 편히 뻗고 잘 수 있다”고 하면서 “제해필승(制海必勝)! 홍범도함!”이라고 견배를 제의하였고, 강정호 함장은 “필승, 홍범도! 홍범도! 홍범도!”로 화답했다. 이사장은 이 자리에게 강 함장에게 위문금으로 금일봉을 전달하였다. 만찬 후에는 승용차편으로 진해 시내가 한 눈에 보이는 260고지 안민고개에 올라 진해 야경을 관광하였다.

둘째 날에는 해군호텔 인근 식당에서 콩나물해장국으로 아

침식사를 마치고 진해루가 있는 진해 부두를 산책하고, 이사장 내외와 홍성덕 부이사장은 해군잠수함사령관 윤정상 소장을 방문하였다. 이 사이에 임원들은 참·돌고래 전시장을 견학했다. 돌고래급 잠수정은 디젤엔진으로 발전하여 충전하는데 엔진을 가동할 때는 산소를 공급받기 위하여 수상으로 올라와야 되므로,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우리 일행은 근래에 운위되고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어서 홍범도함과 동일한 규모인 김좌진함(214급 잠수함)을 수직 사다리를 타고 안에까지 들어가 견학하고, 잠수함의 비좁은 공간에서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승조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였다. 이어 잠수함역사관과 이승만 별장, 기뢰 전문부설함인 원산함을 관람하였다.

우리 홍범도기념사업회 임원들은 1박 2일간의 일정을 통하여 자매기관인 홍범도함 승조원들과 우의를 나누고 잘 짜여진 일정과 정성스러운 대접으로 대한민국의 해군과 잠수함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사장 피규어>

“건국절을 수용하면 민족사의 정통성을 잃어버린다.”

“시사 IN” 제470호(2016. 9. 17) 이종찬 이사장의 인터뷰 요약



건국절 제정 주장은 우리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뉴라이트 측에서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건국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수립 후 “새로 탄생된 이 민국의 연원은 기미년(1919)으로부터 기산한다.”라고 천명하였다. 1948년 발행된 우리나라 관보

1호에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기재했다. 1948년 8월 15일 축하행사 때도 플래카드에 엄연히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 축하식”이라고 나와 있다(사진).

1948년에 건국했다고 하면 그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당장 독도는 누구의 것이 되나? 위안부 문제도 나라가 없었으니까 일본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건국절을 법제화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정상적인 역사가 다 깨어진다. 정부에서 뉴라이트 쪽에서 주장하는 건국절을 수용한다면 우리는 민족사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기미년(1919)에 세웠고, 광복 이후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재건했다는 뜻이다.

초대 내각 이인 법무부장관은 제헌의원들이 정부 수립 전 우리 국적을 물었을 때 “국적은 당연히 대한민국이지요. 일제 치하에 정부가 없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여 국회 속기록에 남아있다.

1943년 연합국 측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화민국의 장제스 총통이 발표한 카이로 선언에서 독립을 약속한 나라는 인도도, 아일랜드도 아닌 대한민국밖에 없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기념일에 이 대통령은 “동양의 오랜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회복되었다”라고 선언한 것이다. 나라는 계속 있었는데 일제가 강탈한 정부를 1948년에 다시 정부를 회복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이 대통령이 정부 수립 연차를 기미년으로 기산해 ‘대한민국 30년’으로 한 뜻은 통일된 나라를 만들 때를 내다본 것이다. 1948년에 건국되었다면 남과 북이 별도로 정부를 세웠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명분과 정통성도 잃어버리게 된다. 1919년에 세운 대한민국은 한반도를 모두 통할하는 통일정부이기 때문에 통일의 정당성이 생긴 것이다.

이승만 박사가 자신을 ‘건국대통령’이라 했다면 더 영광스

러웠을 텐데도 이를 부인했다. 이승만 박사를 비롯한 당시의 원훈들은 큰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대붕(大鵬)의 뜻은 어찌 연작(燕雀)들이 알겠는가? 이승만 박사를 비롯한 선열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출범함에 있어서 언제나 통일 조국의 날을 내다보고 대비하였다.

그런 연장선에서 비록 임시정부계 양대 거두 김구와 김규식이 정부수립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전통을 이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 초대 내각을 꾸릴 때, 그는 임정계와 애국 인사를 대거 등용했다. 당시 연세가 80노령이었던 이시영 용을 부통령으로, 광복군 참모장 이범석을 국무총리로, 입법부의 수장도 임정의 내무총장이었던 신익희로 하였다. 그분은 사석에서 “성재(이시영)는 대한제국의 평양감사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무총장이요, 대한민국의 부통령이시다”라 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장도 김병로, 법무부장관은 이인, 모두가 독립운동가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 이런 진용으로 정부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는 북한에서 수립된 정권과 정통성 경쟁을 위한 원대한 포석인 것이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개헌할 때도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 법통 계승” 문구가 들어 있다. 당시 일제 학도병 출신으로 광복군으로 탈출하여 광복군 1호였던 김준엽 전 고려대학교 총장이 직접 본인에게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헌법 전문에 꼭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당시 이강훈 광복회장 등 독립운동 원로들의 조언을 받아 개헌소위원회 여당(민정당) 간사인 현경대 의원을 찾아가 배경을 설명하고 헌법전문에 삽입할 것을 요청했다. 그렇게 해서 현행 헌법 전문대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라고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 그리하여 1987년 헌법을 개정할 때 확실하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이래 노골적으로 임시정부 법통을 무시하는 건국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건국절을 막는 일은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지키는 일이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 국민축하식〉

홍범도장군 순국 73주기 추모식 및 학술회의 계획

기념사업회에서는 홍범도장군 순국 73주기를 맞아 추모식과 학술회의를 10월 25일 오후 2시, 경북궁 경내에 있는 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국가보훈처 후원으로 거행할 예정이다.

1부 추모식에서는 이종찬 이사장의 기념사에 이어 서울북부보훈지청장과 광복회장, 그리고 홍범도합 대표의 추모사가 있다. 헌화는 장소관계로 식당에 입장할 때 장군의 영정 앞에 조화를 바치도록 준비한다.

제2부 학술회의는 박환 수원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지금까지 소홀히 했던 “러시아 동포사회에서의 홍범도장군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다.

제1주제는 “러시아 홍군에서의 활동과 연해주 정착활동”을 주제로 윤상원 전북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여기에서는 홍범도장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독립군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러시아 홍군에 편입했던 배경과 무장해제 이후 동포들과 함께 항무지를 개척하면서 독립운동정신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려 했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한다.

제2주제는 “강제 이주와 카자흐스탄에서의 정착활동”을 대

상으로 홍웅호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홍 박사는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여 척박한 토양 속에서 갖은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고 정착하는 과정과 우리 동포사회의 영웅적인 지도자로서 홍범도장군의 역할을 조명한다.

제3주제는 “홍범도장군 서거 이후 고려인 사회에서의 장군에 대한 평가와 추모사업”에 대하여 최영근 선생이 발표한다. 최 선생은 전 카자흐스탄 “레닌 기치” 편집국장장과 고려신문 시장을 역임한 인문학 박사이다.

한편 특별 주제로 중국 흑룡강성 밀산시 부시장을 역임한 맹고군 선생이 “밀산에서의 홍범도 장군의 행적”을 발표하도록 교섭하고 있다. 밀산은 1909년부터 이상설 선생의 지원으로 우리 동포들이 한홍동을 개발했던 지역이며 홍범도장군은 밀산 군관학교에서 교관을 지낸 바 있고, 1920년 청산리대첩 이후 러시아 국경으로 철수하면서 독립군 연합군부대를 편성하여 부사령관을 맡았던 바로 그곳이다.

이종찬 이사장 일행, 윤정상 해군잠수함 사령관 예방

홍범도합 초청 방문행사 중 9월 9일 오전, 이종찬 이사장 내외분과 홍성덕 부이사장은 강정호 홍범도합장의 안내로 해군잠수함사령관부로 윤정상 사령관을 방문하였다.

잠수함사령부는 국가 전략무기체계인 잠수함의 작전과 교육훈련,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휘하는 부대이다. 잠수함사령부는 1992년 우리나라 첫 번째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독일에서 인수한지 23년만인 2015년 2월 창설되어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하여 운영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초대사령

관인 윤정상 소장은 해사 38기로 임관하여 정운함장, 제92잠수함전대장, 합동참모본부 해상전력과장, 제9잠수함전단장, 해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윤 사령관은 이날 방문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디젤-전기추진체계 잠수함에서 벗어나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은밀성과 기동성을 갖추어 가장 신뢰성이 있는 공세적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사령관은 ‘잠수함에 대한 이해(100문 100답)’와 기념 모자를 선물했고, 기념사업회에서는 손광춘 이사가 대표로 있는 수서원에서 출판한 ‘한국의 수군’이라는 책을 선물하였다.

진해 방문 임원단, 현지 워크숍 개최

홍범도합 초청으로 진해를 방문한 기간 동안 9월 8일 저녁, 방문 임원 14명은 홍성덕 부이사장 주관으로 해군호텔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기념사업회 운영과 관련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영철, 손광춘 이사는 앞으로 임원 모임을 정례화하여 기념사업회의 운영은 물론, 임원들 간의 친목과 우의를 굳게 하여 조직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자고 제의하여 모든 회원들이 동의했다.

한편 문준진 사무총장은 홍범도장군 관련 전승행사나 추모행사를 국내 각 대학교 측과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홍범도장군의 독립운동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저변을 확대하자고 제안을 하여 내년부터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사장 내외분, 사령관, 부이사장, 홍범도 합장〉

흥범도함 승조원들의 투철한 사명감을 직접 체험했다.



문 준 진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2016년 여름... 찜통더위와 열대야로 밤잠을 설친 지가 엇그제 같은데 가을바람이 술술 부는 가을 문턱에 들어섰다.

지난 4월에 흥범도함 부대 창설식과 흥범도함 진수식에 참여하였고, 6월 7일 봉오동전투 전승기념식에 흥범도함 부대원들을 초청하여 흥범도장군기념사업회와 흥범도함 부대 간에 자매결연 행사도 가졌다. 이런 연고로 흥범도함 부대가 우리 기념사업회 임원들을 초청

하여 이번 행사가 성사된 것이다.

그 동안 사상 유례없는 8월 중 불볕더위와 열대야로 이번 행사에 연로한 임원분들이 많이 참석한다는 얘기를 듣고 혹 힘드시지 않을까하여 걱정스러웠는데 9월로 들어오면서 완전한 가을 날씨가 찾아와 한결 걱정을 덜게 되었다.

이번 초청행사는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 해군기지를 견학하는 코스였다.

첫날인 9월 8일 서울역에서 13시 40분 진주행 KTX를 타기로 하여 서울역 대합실에 모였다. 대부분의 임원들께서 진해 해군기지과 잠수함 등을 처음 본다는 기대감으로 상기된 표정이었다. 이종찬 이사장님과 사모님께서 밝고 친근한 표정으로 우리 일행들과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기차에 몸을 실었다.

오후 4시경 창원중앙역에 내렸더니, 흥범도함 강정호 함장과 간부 장교들이 마중을 나와 반갑게 맞이하여 준비한 승용차와 버스편으로 첫 번째 행선지인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으로 출발했다. 박물관에서는 해설사의 안내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초대 해군참모총장인 손원일 총장의 업적, 근·현대의 해군 무기와 함정의 발달사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이어서 해군사관생도들의 숙소와 침실, 남녀 사관생도들의 의류 진열장까지 돌아보면서 사관생도들의 고된 내무생활을 짐작할 수 있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영해를 보위하기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과 애국심으로 내무생활에 충실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들 해군의 역할에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그날 저녁 만찬은 흥범도함 초청으로 컨벤션센터 뷔페식당에서 갖게 되었다. 이종찬 이사장은 축배사에서 “여러분의 철통방위 덕분에 우리 국민은 발을 뻗고 잘 수 있다”면서 “재해필승, 흥범도함”이라고 건배 제의하였고, 강정호 함장은 “필승, 흥범도! 흥범도! 흥범도!”로 화답하여 만찬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흥범도함 부대에서는 이종찬 이사장님을 명예함장으로 위촉하고, 이사장님의 전신 모양 피규어를 선물로 증정하고, 이사장님께서 금일봉을 위문금으로 전달하였다.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이사장님께서 전 승조원들에게 술잔을 돌리면서 격려하고, 테이블별로 사진을 촬영하고 축배를 하면서 구호를 외쳤다.

숙소는 해군호텔이었다. 종일 빡빡한 일정으로 피로한데 잠시 우리 방에서 회포를 풀자고 했더니, 이사장님과 부부 동반한 홍이표 이사를 제외한 전원이 함께 했다. 모처럼 임원들이 만나는 자리라 차분한 분위기에서 기념사업회의 발전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홍성덕 부이사장이 자연스럽게 진행을 맡아, 모든 임원들이 순차적으로 평소 생각하던 방향을 얘기하였다.

여러분들이 기념사업회의 회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필자는 국내 각 대학교와 연계하여 젊은 회원도 확보하고, 흥범도장군의 독립운동 정신을 과급하기 위하여 연계활동을 갖자는 제안도 하였다. 열띤 토의를 하다 보니 자정이 가까워져, 부이사장께서 추후 서울에서 본격적인 워크숍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하여 모두 제방으로 돌아갔다.

2일차인 9일 아침에는 인근 식당에서 콩나물해장국으로 아침식사를 하고 이사장 내외분과 부이사장은 잠수함사령관을 예방하였다. 나머지 일행은 참·돌고래함 전시장을 둘러보고, 흥범도함과 동일한 규모의 잠수함인 김좌진함(214급 잠수함)의 내부를 살살이 살펴보고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잠수함 역사관도 견학하였다. 214급 잠수함은 우리의 최신훼 잠수함이지만 잠수기간은 15일 정도인데 비하며 미국 등 선진국의 핵잠수함은 6개월 이상 잠수작전을 수행한다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잠수함의 위상이 아직도 걸음마 단계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저버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승만 별장을 구경하고, 기뢰부설함인 원산함에 승선하여 주요 임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소형 군함을 타고 진해 해군기지를 한 바퀴 둘러보면서 진해 해군기지가 천혜의 요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일행은 아무 탈없이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1박 2일 동안 해군기지 견학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국도방위를 위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잠수함 부대원들의 투지와 국가관으로 똘똘 뭉쳐있는 열정을 직접 체험하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힘입어 모든 국민들은 더욱더 열심히 생업에 충실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 일행에게 빈틈없는 일정으로 성대하게 환대해 준 강정호 함장과 승조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고, 더욱 강한 해군으로 거듭나길 기원한다. 그리고 흥범도함 부대원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축원한다.

기념사업회 방문단, 진해 해군기지 견학 사진



〈잠수함 사령부 산하 부대 군기앞에서〉



〈홍범도 함과 같은 규모인 김좌진함 함상에서〉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관람〉



〈기뢰부설함 원산함 함상에서〉



〈해군사관학교 생활관 로비〉



〈잠수함 역사관〉



〈해군사관학교 앞 손원일 함 데크를 배경으로〉



〈홍범도함 승조원들과 함께한 만찬장〉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아서

—러시아 연해주, 중국 흑룡강성 일대 답사기—



황 원 섭

(기념사업회 이사)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에서 이상설 선생이 세운 서전서숙 11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8월 29일부터 1주일 동안 러시아 연해주와 북만주 흑룡강성 일대를 답사하였다. 필자는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 참여하고 있기에 이 지역을 답사하면서 자연스럽게 홍범도 장군의 유적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 답사단 일행이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것은 8월 29일이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의 6개 주의 하나인 연해주의 주도로, 인구는 63만 명 정도로 작은 도시이지만 러시아의 극동 해군기지가 있는 군사적인 요충지이며, 잘 계획된 서구풍의 아름다운 항구이다.

홍범도 장군이 처음에 여기에 도착한 때는 1908년 겨울이라고 한다. 홍범도 의병부대는 1907년 후치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섬멸하고, “날으는 홍범도”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일제의 고문으로 부인을 잃고, 아들 양순은 정평전투에서 전사한 후 40여 명의 의병들과 함께 중국을 거쳐 연해주에 도착하게 되었다. 1909년 블라디보스토크 동북의 스찬(水淸)에서 동포들을 대상으로 군자금을 모금하여 의병을 재편성하여 함경도 경원까지 진격하였다가,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서 이상설 선생과 함께 권업회를 조직하고 부회장으로 취임하여 동포들의 정착활동을 지원하면서 독립운동정신을 고취시켰다.

우리 일행은 9월 2일에는 흑룡강성 주도인 목단강시에서 출발하여 러시아 국경 밀산에 도착했다. 중국 동북 북경지대인 밀산에는 홍범도 장군께서 십리와란 곳에 권업회 농장을 개척하여 일하면서 항일 투쟁을 준비한 곳이다. 십리와에는 아직도 우리 동포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조선족 새농촌(새마을)을 가꾸고 있었다. 여기에는 밀산시 인민정부에서 조선족 정착 100주년을 기념하여 2005년에 건립한 “십리와 항일 투쟁 유적지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1909년 이상설 선생의 지원으로 개척했다는 홍개호 옆에 있는 한흥동 마을을 돌아보고 해가 저문 후라 어두웠지만, 일행들은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순국선열들에게 묵념을 올리고, 선열들의 영혼을 추모했다.

1913년에는 밀산 홍개호 옆에 있는 봉밀산에서 이상설과 이승희의 후원으로 한민학교(일명 밀산무관학교)을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1914년 홍범도 장군은 이 학교에서 교관으로 활동하였다. 이 학교는 우리 동포들이 개척한 한흥동 마을과 인접한 군사적 요지였다.

밀산은 1920년에도 홍범도 장군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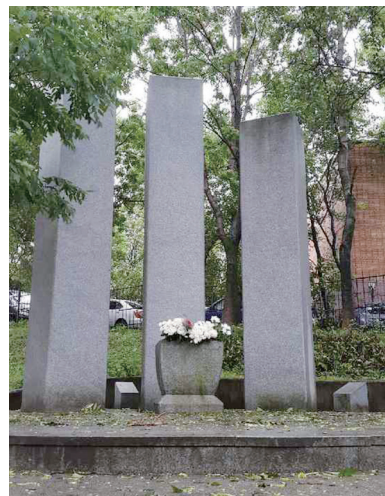
장군께서 주도하신 청산리대첩에서 일본군을 섬멸하자 일제

는 3개 사단을 동원하여 간도 일대의 조선족들을 “토벌”하였다. 이때 우리 독립군부대들이 철수하여 집결한 곳이 밀산이다. 11월부터 간도 전 지역과 연해주에 있는 독립군 3,500여 명이 집결하여 대중교 지도자 백포 서일 장군을 총재로 독립군 연합부대인 대한의용군총사령부를 결성하여 ‘대한독립군’으로 개편하고, 홍범도 장군이 부총재로 취임하였다.

밀산으로 집결한 것은 당시 일제의 추격 상황을 고려하여 러시아 국경을 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독립군들 중에는 러시아를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김좌진 장군 등은 서간도로 돌아가고 홍범도 장군은 밀산을 떠나 러시아 국경도시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자유시에서는 일본 측의 공작으로 독립군의 상해파(민족주의)와 일르츠크파(계급투쟁)가 격렬하게 대립하여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된다. 홍범도 장군은 중립을 견지하면서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이들을 수습하고, 독립군의 편제를 유지하면서 후일을 기약하기 위하여 러시아 홍군에 편입되어 일르츠크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이 진압된 후에 독립군은 무장해제되어 이만과 수청 등지에서 협동농장을 주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우리 답사단 일행은 8월 30일 홍범도 장군이 1937년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출발했던 라즈돌리노역을 답사하였다. 블라디보스토크역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 편으로 35분간 이동하면 라즈돌리노역에 도착한다. 지금은 폐쇄된 역으로 남은 건물만 남아 있는 초라한 역사이다. 당시에 화물열차만 정차하는 화물전용 간이역으로 우리 동포들은 창문도 없는 화물열차를 타고 짐짝처럼 강제로 이주했다고 하니, 스탈린의 폭정과 강압정치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실감이 났다. 그러나 이 역에는 아무런 표지판이나 설명없이 무정한 남은 역사만 남아 있어 나그네의 마음을 더욱 울적하게 했다.

이번 답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다. 모택동이 유격전을 설명하면서 주민과 유격대와 관계를 “물과 물고기”로 표현했다. 우리 독립군이 물고기라면 연해주나 북만주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물이다. 조선족 동포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이 우리 독립군의 기지이며, 거점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독립운동을 가능하게 했던 고려인이나 조선족을 새롭게 조명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기념비〉

홍범도 장군 저서소개-7

김군태 감수/리룡득 역음

민족영웅의 설화와 민요

-홍범도 장군과 안중근 의사-



이 책은 중국 각지 조선인 지역, 더욱이 홍범도 장군 의병이 크게 활동한 연변, 특히 안도현 명월구 일대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홍범도 장군과 안중근 의사를 찬미하는 전승 설화, 민요들과 일제와 그 앞잡이들을 풍자, 야유하는 내용을 수집하여 정리한 책이다. 이 작품집에는 당시 사실과 맞지 않는 작품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홍범도 장군과 안중근 의사의 모

습을 알 수 있다.

습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구성은 설화 74건과 가송(歌頌: 공로와 어진 덕을 기리는 노래) 민요 186건이 수록되어 있는데 설화 74건 중 홍범도 장군 설화가 69건, 안중근 의사 설화는 5건이다. 가송 민요 186건 중 홍범도 장군 설화가 128건, 안중근 의사 설화는 58건이 수록되어 있다.

편집인 리룡득은 1940년 길림성 안도현에서 출생, 1954년부터 문학창작활동을 시작하여 국내외에서 2천여 편의 작품을 발표했다. 연변대 문화예술통신학부를 졸업하고 중국소수민족작가협회 회원, 중국민간문예가협회 회원, 연변민간문예가 협회 고문이기도 하다.

홍범도 장군의 재미있는 설화 몇 편을 살펴보면

- 1920년 6월 연변 도문시 장안진 소동골 봉오동 전투에서 대승한 이후 이곳을 홍범도골이라고 불렀다. 그 기원을 보면 1920년 8월 안도현 량병향 구일라지 부락에서 최금녀, 리성렬 부부가 재배하는 호박을 따러 갔는데 “홍범도 수하 선발대의 병들이 호박 다섯 개를 따가고 그 값으로 엽전 열 잎을 주고 가니 받아 주십시오”라는 쪽지를 두고 가서, 세상 이런 훌륭한 구국군이 어디 있느냐고 감탄하고, 큰 골안을 홍범도 엽전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 1919년 8월 안도현 영정향 소시하촌의 환갑이 넘은 한씨 여인네 집에 들렀을 때 홍범도는 굶주리는 이들에게 쌀과 밀가루를 주자, 감동한 한씨 여인이 두 아들을 홍범도 부대에 보내려고 요청했으나 큰 아들만 독립군 일원으로 용감히 싸웠고, 작은 아들은 집에서 어머니를 잘 돌보면서 비밀리에 형네 부대를 힘껏 도왔다.

- 1920년 8월 초순 룡정 일본총영사관 형사부장이 지휘하는 기병수색대 총 28명을 죽이고 명월구에 이르게 되었다. 명월구 한인들은 그간 홍범도 독립부대의 언행에 감동하여 큰 황소 한 마리를 사다가 잡아 대접하기로 했으나 홍범도 장

군이 거절했다. 우리가 이곳을 떠나게 되면 일본침략자 놈들의 행패가 이만 저만이 아닐테니 절대 그러지 말라고 당부했다.

- 홍범도 장군의 의병대로 입대하려던 한 총각이 흑룡강성 녕안현의 한 집에 들게 되었는데 그 집의 젊은 여인에게 반하여 하룻밤을 보낸 후 홍범도 장군을 찾아가 지난 밤 이야기를 털어 놓았다. “뭣이? 네 놈의 그런 허랑방탕한 못된 풍기를 가지고 독립군에 들어와?” 이에 “내 다시는 그따위 행실이 없겠으니 그 죄과를 뭉뚱리는 기풍으로 일제 침략자를 쳐부수겠습니다”고 다짐하자, 홍장군은 그 여인의 남편을 만나 제책까지 알려주어 오해를 풀어, 이 총각은 홍범도 부대에서 으뜸가는 맹장이 되었다고 한다.

- 중국 명의 화타의 치료법을 알고 있는 홍범도 장군은 벌에 쏘인 어른의 얼굴에 바위 이끼를 뜯어다가 바르게 하여 치료케 했다.

이외에도 미인계로 홍범도 장군을 독살하려던 일본의 음모를 색출하여 분쇄한 사례, 신을 거꾸로 신겨 왜놈들을 미혹시키는 전술, 친일 조선인 밀정에게 역정보를 흘렸던 내용, 진정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싸우는 홍범도 장군, 백성들에게 항일 정세교육에 투철했던 대민전술 등 전설적인 조선 민족영웅, 결출한 독립운동가, 저명한 항일의병장이며 독립군사령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일화가 수없이 많다.

홍범도 가송 민요를 소개하면

홍 장군 손을 드니 천군만마 내달리네
홍 장군 명령하니 왜놈들이 벌벌 떠네
홍 장군 개천가에 산천초목 환호하네

홍 장군 조선에 나타났네/ 왜놈들 죽치는 장군
홍 장군 중국에 나타났네/ 왜놈들 죽치는 장군
장군은 누구냐?/천군지휘 홍 장군!

홍범도 장군 따라 광복합시다!

잇었나 잇었나 일제 원수가/합병한 수치를 네가 잇었나
삼천리 강산의 조상 나라를/우리 손으로 광복합시다
홍범도 장군 따라 광복합시다.

이 책에서 서술한 설화와 가송 민요는 검증되지 않은 구술을 채집한 내용이지만, 전설적인 홍범도 장군의 인격과 전략 전술, 의병들과 주민들을 배려하는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자료집이다(도서출판 역락, 18,000원).

정리: 홍성덕 부이사장

임원동정

○이종찬 이사장



“바른 역사 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계신 이사장은 오는 9월 28일부터 12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서울 교대 종합문화관에서 강좌를 개최한다. 강좌의 주제는 민족사적 건국과 대한민국정부수립, 식민사관과 중화사대주의사관 비판, 통일관련 등이다. 9월 28일에는 이 이사장께서 “대한민국은 언제 세워졌나?”를 주제로 강의한다.

○이우재 고문



이우재 윤봉길의사월진회 회장은 8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 동안 국제한민족재단에서 주최한 “제6회 하계 시베리아 횡단 유라시아 대장정”에 참여하였다. 서울에서 출발하여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하고, 시베리아 횡단열차 편으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을 거치면서 연해주 극동의 한민족사, 고려인의 디아스포라, 통일과 유라시아에 관한 특강과 부대행사를 가졌다.

○김유진 고문



김유진 고문은 8월말, 함경북도 북청군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실향민의 묘소를 운영하는 부용산통일묘원의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7월 1일에는 공법인인 4·19혁명공로자회(회장 유인학)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이영철 이사



이영철 4·19포럼 회장은 지난 6월 29일 오후, 4·19도서관 강당에서 지재운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총장을 초청하여 “중국은 과연 우리의 이웃인가?”를 주제로 강좌를 개최했다.

○이미자 이사



이미자 종로구의회 의원은 지난 8월 구성된 후반기 원구성에서 건설복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이사는 종로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새로운 포부를 밝혔다.

○홍이표 이사



“애국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소비자모임(애지모)”인 홍이표 회장은 8월과 9월, 김해, 울산, 대전, 서울 등지에서 애지모 환경봉사지킴이 기사단 육성을 위하여 환경교육과 봉사활동을 실시

하였다. 또한 100여 명의 학부형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학과 청년취업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애지모 비전스쿨을 진행했다.

○황원섭 이사



황원섭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는 지난 8월 29일부터 1주일 동안 독립운동 전공학자 등 16명과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흑룡강성 북만주 일대 국경지대 독립운동 유적지를 답사하였다. 특히 이 지역에는 신한촌, 한흥동, 밀산군관학교 등 홍범도 장군의 무장 독립운동 유적지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

○김환길 독립운동사교육연구회장



김환길 가락고등학교 교장은 지난 8월 31일 40여 년간 재직했던 교직을 떠나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한편 독립운동사교육연구회에서는 10월 8일 우당기념관에서 고등학생 45명을 대상으로 4주 동안 독립운동을 집중적으로 현장 학습하는 제20기 우당청소년역사교실 개강식을 개최한다.

○김도경 국장



김도경 한국여성문예원장은 10월 28일 오후 5시, 명동 M플라자 해치홀에서 제7회 명동 시낭송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방송인 최불암, 연극인 박정자를 초청하여 “명동백작 이봉구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명동백작과 친구들”이란 주제로 개최한다.

○라철룡 중국도문시 수남총장



라철룡 총장은 금년 상반기에 수남총장으로 재선되고 공산당서기까지 겸하게 되었다. 지난 7월 1일에는 북경에서 개최된 중국공산당 창당 95주년 행사에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유일한 선진기층당조직 대표로 참석하였다.

○강대구, 박명구 선생



강대구 중동교 교사와 박명구 백송교 교사는 9월 3일 우당청소년역사교실 제19기 수강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3시간 동안 중구 명동과 남산일대 일제 식민통치기관과 독립운동 유적지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두 분 교사는 2012년부터 우당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 우당청소년역사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5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